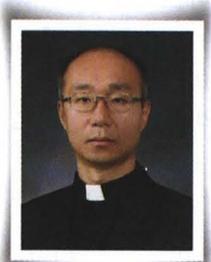


연중 제 19주일 2007년 8월 12일 (다해)

강론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김영태 신부
(성심여중교 종교감)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있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는 말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정말 공부를 못하게 된다. 집중력이 없다고 믿으면 정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많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공부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아이가 공부를 할리 없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믿는 아이가 한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고 노력할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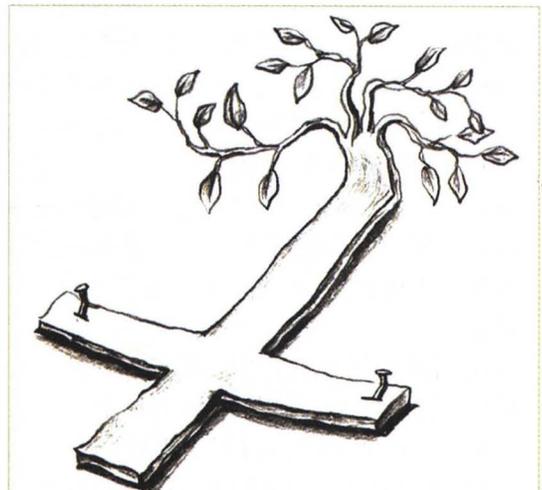
긍정적인 믿음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부정적인 믿음은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는 단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다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말로 포장하려해도 포장되지 않는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루카 12,34)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강조하신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믿지 말고 사랑을 믿으라고 충고하시고(마태 19,16-26; 마르 10,17-27), 제자들에게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힘

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신다(마태 17,19-21).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소경에게는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은 그 믿음이 결국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신다(마르 10,52).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기구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희망으로 이끌었다. 그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은 있는가? 혹 다른 것에 믿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숲머리 생각



한병기(프란치스코)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희망은 있다.

성녀 마르타(1세기)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녀는 마리아와 자매이고, 라자로와는 남매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삼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구같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타니아에 있었다.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일과 마르타의 음식을 만드는 일은 둘 다 주님께 필요하고 소중했다. 곧 마리아는 말씀들음으로, 마르타는 음식준비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현존했다. 마리아 없이 마르타 없고, 마르타 없는 마리아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다. '기도 없는 행동없고, 행동 없는 기도

복음서를 통해 추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분주하게 일하며 가사를 돌보는 여인이다. 일상에서 집안 식구들을 돌보는 일과 손님접대에 최선을 다한다. 어느날 예수께서 방문하시어, 그분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던 그녀가 예수께 말씀드린다. '마리아더러 저의 일을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대답하신다.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고 바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소중한 몫을 택하였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일이 몸으로 봉사하거나 움직이는 일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나 그렇게 대조하거나 비교할 일은 아닐 것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마리아는 집을 방문하신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일로 봉사하고, 마르타는 음식을 만드는 일로 주님께 봉사한다. 두 자매의 마음은 예수님의 방문으로 똑같이 반갑고 설레이며 기쁨으로 일렁이었다.

없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의미 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아무런 힘이 없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병행할 때 비로소 그 의미와 힘을 발한다.'

그녀는 또한 예수께서 생명과 죽음의 힘을 가지신 분임을 목격하고 들은 증인이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형제간인 라자로가 죽었다. 그녀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셔 왔다. 그녀가 말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라자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었을 지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그녀는 가사를 돌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주보성녀이신데, 그녀는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현존과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우리도 그녀처럼 우리의 삶과 기도의 시선을 사랑이요, 스승이신 주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일이다.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고

지난 7월 18일(수) 환경사목에서는 홍보국의 후원으로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게 되었다. 부안, 군산, 진안, 줄포, 전주 등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참석해주었다.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지구의 위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다큐멘터리였다. 지구

온난화는 심한 폭풍, 가뭄을 야기하고,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기후를 변화시켜 질병을 퍼

트리기 때문에 인간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구온

난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와

열을 저장하는 가스들이 대기에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가스들이 대기를 덮는 두꺼운 담요 역할

을 해 태양열의 방출을 막아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

는 것이다. 이 가스들은 자동차나 화석 연료들이 연소

할 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이나 경작지 축소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이산화탄소의 양과 이상기후가 비례하는 것

으로 되어있었다. 50년 뒤에는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는 현재 시한폭탄 위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 후손

들은 살아



이덕자(안젤라)
전주교구 환경사목 회장

남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직 희망과 해결

방법은 있다고 한다.

에너지 보존과 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나무 텃 베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

닐 텃 쓰기 등 우리 개개인

이 생활에서 오염시키는 것을

덜해야 한다. 이 영화를 만든

엘 고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에게 피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는 것만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내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도 윤리도

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가슴이 뜨끔하였다.



입당송 시편 74(73), 20, 19, 22, 23 참조

주님, 주님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주님의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끝내 잊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주님을 찾는 이들의 외침을 잊지 마소서.

제1독서 지혜 18, 6-9

회답송 시편 33(32), 1과 12, 18-19과 22(© 12나)

◎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제2독서 히브 11, 1-2, 8-19(또는 11, 1-2, 8-12)

복음 환호송 마태 24, 42-44

◎ 알렐루야.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 32-48(또는 12, 35-40)

영성체송 시편 147, 12, 14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주님께서는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 마리아폴리에서 하느님과 하나된 교우들

지난 7월 22일(주일)~25일(수),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개최된 '2007 마리아폴리' 행사에 33명의 신동 성당 신자들이 다녀왔다. 「사랑, 생명의 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 포콜라레(지도=이사정 신부)를 포함하여 약 1,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사랑하자!'를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손희정 기자]

● 전주시청 로사리오회 미사



전주시 공무원이면서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인 로사리오회(지도=관리국장 오성기 신부)는 매월 직장에서 봉헌하는 미사를 지난 7월 24일(화) 오후 7시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성기 신부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오신부는 강론을 통해 “근심 걱정은 가상의 비극을 심어 놓는 악마의 운동장이다.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고, 하느님께 맡기면 근심 걱정은 없어진다.”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강조 하였다. 미사 후 회원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화합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시청 및 2개 구청에 50명의 회원이 매일 점심시간 만남을 통하여 성경을 필사하고 매월 1회 성경공부를 하며 피정 및 성지순례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장근 기자]

● 10주만에 걸친 농구 결승전

지난 7월 29일 익산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이주사목 소속 필리핀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농구 대회 결승 경기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7일 익산대 농구

코트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10주 동안(매 주일) 4게임이 경기를 가져왔으며 7월 29일 결승 경기를 가졌다.

2006년까지는 이주 사목에서 모두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행사에 필요한 우승컵, MVP 등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승은 Walang Pag-asa Kayo팀이, 준우승은 Kunsan King이 차지하였다. [김영수 기자]

● 제차 전주교구 청소년 성령 묵상회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전주교구 청년 성령 봉사회(다니엘 선교단, 지도=이명재 신부) 주관으로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에페 5,14)를 주제로 청소년 성령 묵상회를 실시했다. 이번 묵상회에는 오룡동 성당, 소룡동 성당, 쌍교동 성당, 시기동 성당, 덕진 성당 등 5개 본당이 참여했다.

이번 묵상회는 이명재 신부의 '하느님 사랑'을 시작으로 모두 7강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찬미, 율동, 폐제 및 십자가 경배, 참회 예절, 면담, 고해성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길용운, 권윤달 기자]

● 군산지구 가톨릭 남성 중창단 '올림' 성가봉사



창단 20년의 역사를 가진 '올림' (단장=전영명)이 군산지구 본당들을 방문하여 미사 성가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매월 넷째주 화요일 저녁미사 때 각 본당에 성가를 보급하고 성가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신자들 앞에 서고 있다. 대야, 둔 율동 성당에 이어서 7월 24일에는 미룡동 성당(주임=강호 신부)에서 아름다운 성가와 영성체 특송으로 주님

호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박진상(루카)
 입원상담 063)278-8288
 서노송동 중앙성당 맞은편

호사랑가족요양병원
 병원장 김정연(안젤라)
 입원상담 063)711-1111~3
 효자동 효자프라자 옆

수액 · 수세미즙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온가에서 판매)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

AIG 생명보험

민고 신뢰하시면
 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

이완기(빈첸시오)
 ☎ 상담 : 019-9770-2468
 212-9339

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 이관재
 ☎ 228-6002~3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베)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오) 오서진(마르가리다)
 문의 : 063-253-2599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성지순례

128차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바티칸
 2007년 8월 22일~9월 1일(10박 11일)
 매일 미사드립니다.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063-288-6666



을 찬미하며 미사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켰다. 울림은 군산지구 각 본당의 남성들 21명으로 이루어진 중창단이며 매월 넷째주 월요일마다 지곡 성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또한 격년으로 성가발표회를 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시설 등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있으며 성가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신자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재

● **만경 성당 선후배 합동 미사**

지난 8월 5일(주일) 만경 성당(주임=백수현 신부)에서는 선후배 합동미사를 가졌다.

이날 강론을 에서 “비록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지만 ‘사람 살아가는 길’을 알려 주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뜻을 배우고 따라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기도와 찬미하는 모습을 통해 특별히 선후배간의 사랑이 전해졌고 따뜻하고 흐뭇한 시간이었기에 많은 교우들의 감화가 있었다. |최진순 기재

● **함열 성당 어린이 복사단 성지 순례**

함열 성당(주임=강명구 신부) 어린이 복사단 14명을 비롯한 지도교사, 보호자 일행은 지난 7월 31일(화) 103위 성인 탄생의 산실이고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갈매못 성지를 순례하였다.

어린이 복사단들은 14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땅에 성혈로 세우신 거룩한 성인의 숨결을 느끼며 전례 미사의 참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홍보국 정례

● **청년성서 42차 창세기 연수**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양재식 신부(청소년교육국부국장)와 봉사자 13명과 연수생들은 청년성서 제42차 창세기 연수를 갖고, 앞으로 많은 청년들의 청년성서 입문과 본당의 어르신들의 관심 속에 자녀들의 신앙의 힘이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다. |김영수 기재

송학동 성당 어르신 신앙학교와 가족 캠프 - 조은아 기자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은 지난 25일과 26일에는 본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 신앙학교를 열었으며, 26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와 더불어 온 가족캠프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어르신 신앙학교는 본당 65세 이상의 어르신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웃음치료, 천연염색, 요가, 노래 부르기, 목주 만들기, 어르신 성서, 민요 부르기, 종이 접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본당의 어르신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쌍교동 성당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운영 - 강인식 기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학생부 여름신앙학교를 초등부는 지난 7월 25일(수) 1박2일간 광주 ‘백선 바오로의 집’에서 “나 너들이 주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운영하였고, 중고등부는 지난 7월 27일(금)~29일(일)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곡동 성당 중·고생 여름캠프 - 김영수 기자



지곡동 성당



오룡동 성당

오룡동 성당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길용운 기자

금암동 성당 초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기수도 기자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 ‘초등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여름캠프’가 지난달 7월 24일~26일과 8월 2일~4일까지 산내들 배움터와 청주 꽃동네에서 각각 개최했다. 청주 꽃동네에서 열린 중고등부 여름 캠프는 장애인 체험, 노인요양원에서의 돌보아주기 등을 통해 이웃을 바로 알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재(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요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티넨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양)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젬인아트

전진아 (살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제주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 · 호텔 ·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0-4566-6476

가톨릭 디다케 창간 25주년 기념 '교안 공모 대회'

주제 : '가해 대림 1주일-주님공현대축일까지의 주일 복음 내용 중 선택' 또는 '심계명'
상금 : 대상50만원, 최우수상30만원, 우수상10만원
마감 : 8월 30일(주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 디다케 홈페이지 참조)

‘나눔의 참 기쁨’으로

◎ 나눔의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나운동 성당은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특별히 성전신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당에는 십시일반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물품 판매 시에도 적극적인 후원으로 나눔의 정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나눔 정신은 크게는 본당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성스러움으로, 소외된 이웃과 불우시설에 대한 적극적 후원으로, 또한 군산지역 신자들을 위한 배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도 날마다 쉬지 않고 열리는 새벽 미사는 깨어있는 자의 기쁨을 신자들에게 안겨준다. 안철문 주임신부님은 “새벽 미사는 신자들에 대한 작은 약속의 실천이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새벽미사는 늘 봉헌된다.”고 말한다. 또한 주일 근무자들이나 여러 사정으로 미사를 놓칠 수 있는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일 저녁 8시 30분 저녁미사를 마련하였다. 언젠가 보좌신부님이 교육으로 부재 시에 안 신부님은 주말에 8번의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며 신자들은 안 신부님의 성실하심을 자랑한다.

본당은 교구, 지구차원의 여러 행사와 교육을 수용하여 지구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역할을 해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지하 교육관은 3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산지구 각종 후원회 미사가 나운동 성당에서 봉헌되며, 주 1회 교리 신학원 성서 연수와 강의와 지구 철야 성령기도회가 열려 신자들의 신앙의 갈증을 풀어주며 지역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항구 도시 군산의 복음 지킴이

항구 도시 군산의 복음 지킴이 나운동 성당이 내년 1월이면 본당설립 20주년을 맞는다. 나운동 성당은 지난 1988년, 아파트 개발 붐을 타고 군산의 외곽지역이던 나운동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설립되었



다. 오룡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온 본당은 95년 새 성전을 봉헌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1998년에는 대대적인 선교운동을 벌였다. 황금 어장인 나운동 전 지역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분 것이다. 신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선교를 하였고 이 지역 일대에는 나운동 성당 선교 포스터가 거리를 온통 수놓을 정도였다. 그 결과 6월 입교식에 415명이 예비신자로 등록하였고 27개 교리반이 운영되는 선교의 결실을 거두었다. 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회년인 2천 년을 기해서 본당 공동체는 분가를 시작하였다. 나운동 성당, 지곡성당, 미룡동 성당을 차례로 분가시킨 나운동 성당은 그동안 본당설립 20주년을 맞는 성인공동체를 꾸

나눔과 동행하는 공동체

려나가기까지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왔다. 3개 본당에 1,150세대, 3천여 명이 넘는 신자들을 분가시키고도 3,455명(13개 구역, 45개 반)의 큰 공동체로 거듭 성장해 온 것은 나운동 성당이 그간 지켜왔던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 일꾼다운 일꾼을 양성하는 신자 재교육

나운동 공동체는 다양한 교육의 장을 열어 신자들을 영성의 삶으로 초대한다.

요즈음 본당에는 꼴송이 같은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신자들이 늘어간다. 신자들의 재교육 차원으로 지난 3월 개강한 '삼위일체 성경 대학'은, 강의를 열리는 교육관에 자리를 맡으려는 신자들이 1시간 전부터 진을 친다. 강의를 맡은 김경하 수녀님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풀이해주며 점차로 수강자가 늘어 지금은 23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말씀에 대한 본당 신자들의 관심은 이미 완독을 끝낸 성경통독 2개 반과 거룩한 독서 팀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성서를 꾸준히 하는 4개 그룹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젊은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주일미사 전에 실시하는 '5분 교리' 또한 신자들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 날의 전례와 미사지향에 맞는 내용으로 신자들의 재교육 부분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예비신자 교리 교육 분야에는 교리 신학원 졸업생이 많아 항시 교리교사가 대기 중이라니 본당에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많게 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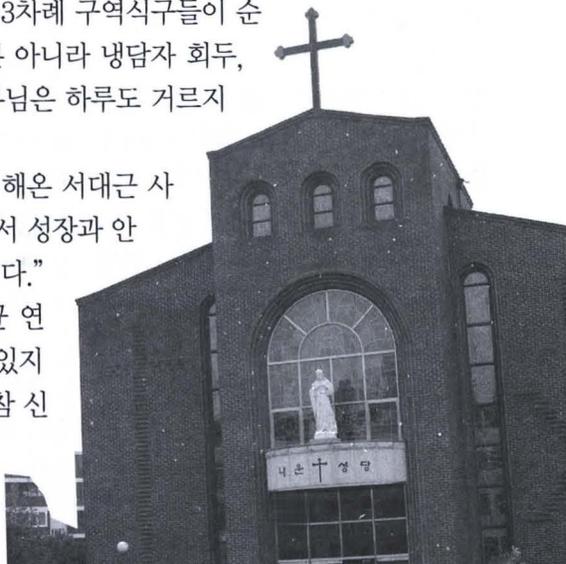
◎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나운동 성당은 사목회 임원의 65%를 여성이 차지하여 본당의 여러 부분에서 빛을 발한다. 시설 좋은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혼배 음식은 깔끔하고 맛있다고 정평이 나있어 이웃에게 간접 선교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머니 봉사회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 직판장은 가톨릭 영농 법안과의 협조로 이루어져 농촌을 살리는 데에도 일조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된 파티마 성모님 순례기도는 구역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다. 총 238세대가 순례기도에 참여하였는데 매일 2~3차례 구역식구들이 순례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보니 기도를 통해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냉담자 회도, 구역이 활성화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본당 신부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방문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나운동 성당의 초기 건축위원장이며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대근 사목회장에게 본당의 전망을 물었다. "지금까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성장과 안정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내적인 성장에 더 힘을 써야합니다."라며 보다 성숙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신자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 전례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당의 지향점인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군산지구 참 신앙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취재 : 오안라 · 신현숙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는 하고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고쳐 주셨다. 그리고는 그에게 “누구에게든 아무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고 명하신다(마르 1,40-45). 왜 그러셨을까?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도,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테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직 그들이 속했던 가정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낫게 해주신 나병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에게 가서 그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바로 여기에 원목실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갑자기 만난 질병으로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 갑자기 만난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그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그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에 떠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원목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물론 그와 더불어 병원 곳곳에 필요한 일손을 내어놓고, 또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협력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커다란 임무일 테지만 말이다.

원목실을 통해 봉사하는 봉사자 분들 중에는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6-7명이나 계시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은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너무 높아져서 젊은 봉사자분들

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나 원목실을 통한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일단은 전주교구의 자원봉사자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는데 지원해서 뽑혀 봉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소양을 키워나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원목실 봉사자 분들은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이면 한두 분씩 도착 하시는 대로 원목실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성체조배실에서 각자 성체조배를 하신다. 그날 봉사자들이 모두 모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원목실의 하루가 시작된다. 원목실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는 많지만 크게 나누자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병원 시스템을 돕는 활동, 그리고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는 병실로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에서부터 원하시는 분께 개

주님께서는...깨끗하게

인 예비자 교리, 대세와 임종준비, 병자봉성체, 고백성사와 병자성사, 상담과 이미용, 음악 들려드리기 등이 있다. 병원 시스템을 돕는 활동으로는 병실봉사와 공급실에서 수술 소독용 작업 도우미, 내과 안내, 약국안내, 장례식장, 도서봉사 등이 또 직원들로 이루어진 브레시디움을 챙기고, 직원들을 방문하는 직원신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있다.

현재 가톨릭 원목실 신부로는 김영신 신부께서 수고하고 계신다. 전주교구의 병자사목 전담 전우진 신부는 필리핀으로 교육을 받으러 나가셨는데 교황청 보건국 산하 교육기구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곳에서 배움을 얻어 교회가 원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주교구의 병자사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시단다. 전북대학병원 가톨릭 원목실을 취재하면서,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봉사자분들까지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들에게 손 내밀어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의가 느껴졌다. 그 마음으로 만날 많은 환자분들이 그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김동욱 기자

▶ '쌍백합' 정기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쌍백합'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백합'과 함께 참다운 삶과 신앙의 길을 걸을 정기 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쌍백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

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쌍백합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 홍보국

문의 : (063) 285-0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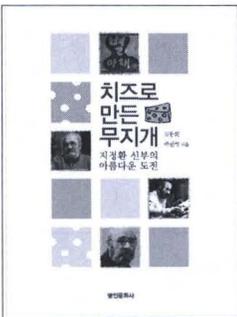
후원 계좌번호 : 전북은행

505-13-0313012 전주교유지재단

★ 쌍백합 전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신간 소개 ◀

치즈로 만든 무지개



고동희, 박선영 지음
/ 명인문화사

2002년 호암상 사회봉사 시상식에서 우리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위풍 당당한 한 외국인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지 않은 그는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지정환 신부이다.

1958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959년 자신이 결정한 사목지인 한국에 왔다. 전주교구에 발령되어 선사받게 된 한국식 이름인 '지정환'은 이후 40여 년 동안,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함께 하였다.

지 신부는 두 번째로 부임한 임실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에 '산양'과 '치즈'라는 방법을 제시하여 날개를 달아주었다. 치즈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 약탕기로 산양유를 졸이고, 비눗갑에 담아 숙성을 시키기도 하는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약 3년 동안 실패만 거듭하였다. 이러한 실패에 그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자비로 유럽으로 가 약 3개월 동안 치즈공장들을 둘러보며 노하우를 배웠다. 이러한 노력으로 치즈 만드

는 방법을 획득한 지정환 신부는 임실로 돌아와 농민들과 함께 치즈 공장을 설립하였고, 1980년 농민들에게 치즈의 모든 것을 주고 떠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임실치즈'의 발전을 함께 했다.

한편, 지정환 신부는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인혁당 사건과 관련, 추방 대상자라는 낙인과 갖은 위협에도 주저하지 않는 용단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5·18로 알려진 잔혹한 폭거가 휩쓸고 지나간 광주 시민에게 우유를 전하려 애쓰던 모습은, 그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현대사를 함께 의연하게 가로질러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80년 지정환 신부는 다발성신경경화증을 앓게 되면서 장애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로부터,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불편, 필요를 몸소 체감케 되었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그리고는 장애인사목 지도신부로 활동하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여 무지개 가족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2002년 호암상을 수여하는 등 그의 공로를 치하하려 하지만, 정작 지정환 신부 자신은 일생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함께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실천적 사랑은 중증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화를 돕는 '무지개가족' '무지개장학재단'을 통해서 여전히 향기롭게 꽃 피운다.



교구장 일정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수) 평화동
- 견진
8월 19일(주일) 오전 10시 영등동

- 레지아 600차 월례회의
8월 19일(주일) 오후 4시 새교구청
- 익산 하나회 미사
8월 19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한국 청년대회
8월 18일(토)~22일(수)
제주 이시돌 피정의 집
- 빛따라 기자단 여름연수
9월 18일(토)~19일(주일) 해월리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8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전국 관리국장 회의
8월 13일(월) 오전 11시 C.C.K
- 예신 월모임(소풍)
8월 14일(화) 오전 8시 교구청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빠르게시디움 간부 직책별 교육
8월 13일(월) 조촌동
- 고3 · 일반 예신 피정
8월 14일(화)~15일(수) 해월리
- M.E 117차 주말
8월 17일(금)~19일(주일) 천호
- 3차 중급 교리교사학교
8월 17일(금)~19일(주일) 해월리
- 레지오 소년Pr. 성인간부 연수
8월 18일(토) 오후 3시 전동교육관

기타

- 초남이 성지 버스 이용 안내
대형 좌석 38+보조석
교구내-15만원+팁 5만원
교구밖- 15만원+팁+유류 추가
연락처 : 초남이성지 011-674-1711,
214-5004
기사직통 010-5321-0323
- 가톨릭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
등록기간 : 8월 1일~21일
장소 : 전북대 평생교육원
문의 : 288-0022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8월 4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사학동, 순창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흥,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용안, 신동, 서신동, 시기동, 월명동, 오룡동, 영등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우림, 무주,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함열, 삼천동, 노송동, 팔마, 금마, 솔내, 지곡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봉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연지동, 미룡동, 부송동, 도룡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화산동, 송학동, 아중, 모현동, 평화동, 창인동

제13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학교(호스피스교육) 신청안내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보다 깊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체험으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호스피스정규교육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9월 3일-10월 29일(매주 월) 오후 1시~5시

대상 : 자원봉사 및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장소 : 전동성당 교육관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

교육비 : 3만원

무통장 송금 : 전북은행 511-13-0312265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송금후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신청마감 : 2007년 8월 29일까지

신청문의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063)284-5290, FAX 063)284-4855

<http://jcatholic.or.kr>(사회사목국자료마당 참조)

※ 본 교육프로그램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가 준하는 시간과 내용으로 협의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협회수료증을 발급 받으실 분은 교육이 수료 될 때까지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주시 천주교 공동묘지(구 소리개재) 별초 입찰 공고 2007-001

대상지역 :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신17-1외 (약 4,600기)

별초 예정일 : 9월 3일(월)~15일(토)

입찰 참가 자격 : 본당 및 재단법인에 등록된 재단체 또는 천주교 신자

입찰마감일시 : 8월 29일(수) 오후 2시

세부사항 문의(금상동성당) : 245-0091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빈첸시오의 집 시설장 모집공고

가톨릭 운영이념을 기초로

노인시설을 성실하게 운영할 분을 찾습니다.

1)자격 : 영세한지 5년이상, 노인생활시설 경력 3년이상, 45세 이상

2)모집기간 : 8월 21일까지

3)기타 : 전주교구 홈페이지 참조

4)문의 : 063)284-5290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7/22~8/4)

민우네 100,000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익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사목회장: 김 기정

- ◎ 금주 구역성경 쓰기: 집회서 13장 15절~17장
- ◎ 휴가객을 위한 공소 미사 안내: 8월 중 매주일 후 2:30(인월공소)
- 1. 오늘 ① 정헬레나, 이헬레나 수녀님 영명축하식
② 새 영세자 피청(교중 미사 후) 대부분 참석.
- 2. 금주 ① 마리아성회 14일(화) 미사 후
② 영세자 예절연습 14일(화) 미사 후
③ 성모승천대축일 15일(수) 전 10:30/영세식, 유아세례식 15일(수) 미사중
④ 안수녀님 주년피청 16일~21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⑤ 전례분과 모임 16일(목) ⑥ 제대회 모임 17일(금)
- 3. 감사헌금: 양규남 10만, 안영미 5만, 익명 1만
- 4. 성전신축금: 시청 로사리오회 50만, 익명 10만
- 5. 차주 ① 제대회비 납부의 날 ② 대전회 ③ 안나회 ④ 아가페회
■ 지난주 봉헌금: 1,056,400원 ■ 교무금: 1,76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8월 셋째주간-아시아49장~55장
- ◎ 오늘은 선교사들기 2차헌금 있습니다
- ◎ 성당청소: 8월18일(토)-윤교, 죽산반
- 1. 모임: 반장모임-교중미사 후
- 2. 금주전례: 해설-이명숙, 독서-고태암 부부, 봉헌-정점남, 권복순
기도-김성구 부부
- 3. 8월15일(성모승천): 해설-권병남, 독서-양호일 부부
봉헌-김영도, 남복희, 기도-고태암 부부
- 4. 차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서정숙, 김순자.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양호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57,000원 ■ 교무금: 1,945,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오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정운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오르간 구입-은인을 구합니다.
- ◎ 오늘 선교사들기 2차헌금 있습니다.
- ◎ 성모승천 대축일 본당미사-10시, 공소미사-11시45분(쌍치)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율프레야 성모회-미사 후
- 2. 차주모임: 테레사회 대전회 요셉회-미사 후, 애령회-21(화)11시
- 3. 청소: 금주-가정의 모후, 차주-바다의 별
- 4. 차량봉사: 이우철 김호, 차주-장경호 유영선
■ 지난주 봉헌금: 978,900원 ■ 교무금: 1,363,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필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양장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더(루카 12, 34).
- 1. 예비자 특별 교리 시작: 9월 11일(화)부터 ※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전 신자 성지순례: 9월 2일(일), 청양 줄무덤, 갈매못.
※ 출발-오전 7시, 참가비 - 10,000원,
※ 8월 19일까지 구역(반)장 및 사무실에 신청바람.
- 3. 성모승천 대축일: 15일(수)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미사
- 4.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849,290단
- 5. 축 꾸리실리스따 탄생: 박용수, 양문규 축하합니다.
- 6. 오늘(일)은 선교사들기 2차헌금 있습니다.
- 7.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161,484,000원, 납입액: 134,095,000원
- 8. 감사헌금: 요한회 - 90만, 자모회 - 57만
■ 지난주 봉헌금: 2,181,000원 ■ 교무금: 4,232,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석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사목회장: 구동수
인월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8월 25일(토) 미사 전 유아세례 신청: 사무실
- 1. 금주 ① 12일(일) 미사 후 이명서베드로회
② 14일(화) 전10시 성모회, 후8시 특전미사
③ 15일(성모승천대축일) 10:30분 미사 후 위령회2차교육
사목회, 공소회장단 단합대회
④ 18일(토) 미사 후 만나회, 후8시 어은동미사
- 2. 차주 ① 19일(일) 미사중 예비자 사도신경 수여식, 미사후 대전회
(목욕봉사), 부귀지역 병자영성제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사목회장: 변홍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208,915만
- 2. 성서를 통독 합시다.
- 3. 병자봉성체 신청 바랍니다.
- 4. 금주전례: 해설 - 전미숙, 독서 - 김진태, 박춘항
- 5. 차량봉사: 김진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6.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박태규, 김양례
- 7. 차량봉사: 변홍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홍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노재진

- 1. 공소미사 ① 가리점-12일(일) 후12시30분 ② 삼검-19일(일) 후6시
- 2.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수)전, 10시 30분-의무 축일입니다.
※ 특전미사: 14일(화)후, 7시30분
- 3. 모임 ① 바오로회: 오늘 미사 후(분도관)
② 구역모임-15일(수)-임실1,3,6, 16일(목)-임실2,5, 17일(금)-임실4
③ 구역장 야유회: 17일(금)
- 4. 감사헌금: 최명규-5만원
- 5. 50주년 기금: 조영자-20만원, 이옥선-20만원 누계-71,314,131원
- 6.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덕치, 가리점 ② 17일(금)-임실 1,3구역
③ 19일(일)-성수
- 7. 차주전례 ① 해설-황연옥 ② 독서-노재진, 진홍영
③ 봉헌-최명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55,500원 ■ 교무금: 887,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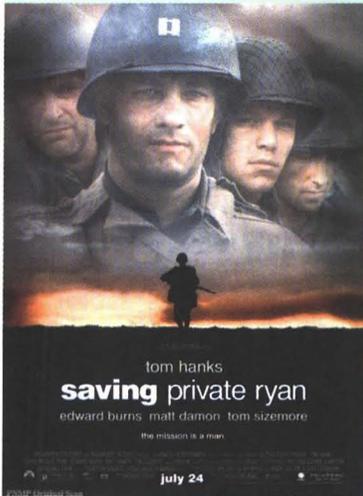
-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세례식 및 유아세례: 14일(화) 저녁미사중
- 2. 첫 고백 및 첫영성체: 15일(수) 9:30, 대축일 미사중
- 3. 전례봉사: 정진주, 김종환, 엄금자, 정교문, 김제일
※ 성모승천대축일: 우연태, 김성빈, 정진주, 김종영, 이봉희,
이상화, 이현숙
■ 지난주 봉헌금: 729,000원 ■ 교무금: 295,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정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15일(수): 성모승천 대축일 10시-세례식, 10시30분-대축일미사
※ 미사 후 나눔잔치
- ◎ 주일학교 방학: 부모님과 함께 교중미사에 참여 하세요
- ◎ 구역반장 모임: 17일(금)
- ◎ 구역미사: 16일(목) 5구역
- 1. 차주공소미사: 상동
- 2. 금주참석공소: 번암, 차주-수분
- 3. 금주전례: 김원순, 차주-장요섭
- 4. 금주독서: 정연수, 최선영, 차주-장양섭, 임진숙
- 5. 금주봉헌: 장재주, 최임주, 황(베드로), 구(베드로), 이(사도요한), 이(요한),
한(루가), 만나회, 이(엘리사벳), 꾸리아, 안나회
※ 봉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553,800원 ■ 교무금: 235,000원

- ② 20일 전 9:30분 어은동 산행, 유치원 개학
- ③ 20일~24일 신부님 휴가 ④ 21일~24일까지 말씀의 전례
- 3. 청소년캠프 후원: 광(테레사), 대전회, 이(사무엘), 신(아나다시아),
성모회, 김(테레사), 황(베드로), 구(베드로), 이(사도요한), 이(요한),
한(루가), 만나회, 이(엘리사벳), 꾸리아, 안나회
※ 봉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25,000원 ■ 교무금: 1,405,000원

인간생명의 가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1998)>는 치열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란 참혹한 상황 속에 군인들의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 사실을 생생하게 극대화시킨 영화이다. 때문에 여느 전쟁영화와는 달리 중형무진 활약하는 영웅도 없고, 적을 화려하게 침몰시키는 장면도 없다. 다만 ‘애국’과 ‘충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두고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참혹하고도 처참하게 공포에 떠는 모습을 통해, ‘아, 실제 전쟁은 이런 것이다.’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나아가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수없이 쓰러져가는 병사들 중에 ‘한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8명 병사의 임무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미국이 유럽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에서 무려 세 형제가 나란히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군대에서 아직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의 구출임무를 띤 한 부대원들의 갈등과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화

속의 ‘라이언 일병’의 모델은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후해서 3명의 형제를 잃었다는 실화에 근거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밀러 대위’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맡은 바 임무를 완성하고 두려움에 지쳐있을 즈음에 상부로부터 다시 특별하고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즉 4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있는데, 3명은 전사하고 이제 남은 아들은 적진에서 실종된 막내인 라이언 일병, 바로 그 막내를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임무였다. 전쟁터보다도 죽을 위험이 더 큰 적군의 지역에 단 한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밀러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임무를 수여하면서 ‘과연 라이언 일병 1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하지만 밀러 대위는 작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설득하며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도중에 전투를 치르다가 동료들을 하나 둘 잃어가면서 겨우겨우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된다. 결국 8명의 병사가 다 희생되는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은 구출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는 2시간 50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관객들에게도 8명의 병사가 겪었던 혼란을 함께 겪게 한다.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는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소(小)를 위해 대(大)를 희생한다.’는 말의 생소함이다. ‘과연 1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8명의 병사가 희생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는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사람들의 무덤을 찾는다. 그는 울면서 자신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영화는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를 구하려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이 죽을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를 관객들에게 물으며, 그 대답은 관객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가에 대해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논리와 계산을 초월한 신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를 두고 바라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의 루카 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이 영화를 해석하는 중심이 된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크고 작은 인간의 논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깊고 넓은 하느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온 나라가 아프카니스탄의 텔레반과 인질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분분하다.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댓글의 내용들이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생각들이다. 과연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권하고 싶다. 영화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자유롭게 우리의 몫인 것이다.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